

보광 2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보광 이후 분신으로 역사하시다

신약성경은 마태·마가·누가·요한의 4 복음서와 바울 선생의 편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신약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으로만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입을 빌리거나 예수의 이름을 빌려 당신의 뜻을 암암리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인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처지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 5절의 구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뜻인데, 정작 예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 못하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세밀히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예수의 말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인류 구원론)을 인봉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구세주 보광과 관련된 예언으로 볼 수 있다. 7년 환란이라고 하는 7년 옥고를 치르시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께서는 출옥 이후 전국에 산재한 지방 제단을 순회하셨는데 주님실에서 식구들에게 떡을 나누주시는 동시에 이슬성신의 은혜를 부여하셨다(사신 참조). 이러한 구세주의 일거수 일투족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장하심에 따라 행하여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기록된 내용대로 떡을 나누어 주시던 진짜 주님께서는 실제로 보광하시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로 원시반본하셨기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미륵부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구세주 정도령께서는 죽지 않는 영생의 진리가 승리제단에서 생동하고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보광하신 주님의 분신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각기 나타내셨다. 주님의 보광 이후 주님을 직접 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세 사람의 간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살아계심을 스스로 입증하는 주님

2004년 6월 19일 주님 보광 이후에 주님의 현현(Epiphanay)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간증담이 승리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이제 보광절 20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주님의 분신 역사를 입증하는 3인의 간증담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3인은 보광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진해제단 주님실에서 주님께서 식구들에게 떡을 나누어줄 때 김희승성신이 내리는 장면

그런데 3인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 한 사람은 승리제단에 나오는 식구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과거에 승리제단에 나왔다가 그만둔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승리제단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먼저 세 부류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의 간증을 살펴본다. 승리제단에 십여 년 이상 오랫동안 나오던 식구였으며 인천제단에서 시무하던 책임승사 김 승사님은 주님의 보광을 맞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제 돈이나 벌어 보자' 하고 제단에서 새벽 일찍 비디오로 예배를 보고 문밖으로 나섰다. 그런데 주님이 저만치에서 걸어오시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김 승사, 예배도 안 보고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라고 하니, 김 승사님은 "방금 예배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라고 응답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책임승사가 제단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봐야지 혼자 예배를 보는 것이 예 배야?" 하고 엄하게 질책하시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승리제단에 나왔다가 그만둔 사람으로 김 목사라는 분이 2004년 7월 29일 11시경 본부제단 전도부에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에 김 목사님은 한 달 전에 주님께서 보광하신 소식도 접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김 목사님은 전도부장 안 승사님에게 말하기를, "며칠 전에 주님께서 소사에 있는 나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참 신기합니다. 까만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은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와 함께 방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전도부장 안 승사님은 김 목사님한테, "주님께서 얼마 전에 보광하셨는데

아직 모르고 계셨군요. 그렇다면 보광하신 주님께서 생시처럼 나타나시어 목사님의 집을 방문하셨군요. 정말 주님께서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김 목사님은 주님의 보광이 믿기지 않는 듯이 매우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보광하신 주님과 직접 대화한 말씀을 늘어놓으셨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깔아놓은 아스팔트 위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며 이제 승리제단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 당신이 아무리 병을 이기려 해도 안 되죠? 내(주님)가 병마(病魔)를 죽여야 병이 나가요.'라고 하시며 또 '아무리 김 선생 자신이 이뤄 보려고 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야 이루어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단에 나오세요. 전에는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못 오게 했지만, 지금은 모두 받아줄 테니 오세요. 매일 예배를 봐야 이루어져요. 전도관 역사 때 영모님도 떨어뜨리는 일을 하셨지만 지금도 쪽쪽이는 날리는 추수를 하고 있으니 제단에 꼭 나와요.'라고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한평생 신앙 생활하시며 전도관에도 다니셨고 얼마간 목회 생활도 하신 분으로 철야기도와 금식기도로 자신이 이루어져 보려고 노력하시다가 건강이 많이 상하였는데, 때마침 보광하신 주님께서 생시처럼 살아서 집을 방문하여 이제 제단에 나오면 아픈 다리도 낫게 된다고 권유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권유에 따라 본부제단 전도실에 찾아오신 김 목사님은 전도부장 안 승사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현재 금식기도 중이라 기도가 끝나면 예배드리러 오겠다고 하시면서 물과 차를 전혀 입에 대지 않고 집으로 가셨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경

우인데 승리제단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주님의 보광 이후에 주님의 현현에 대한 간증이다. 2006년 6월에 문소윤씨가 대구 제단에 입문하였다. 문 여사는 진리를 찾고 자 장로교회에도 가보기도 하고 안식일교, 여호와증인 등 교파를 초월하여 전전하다가 마침내 영생의 비결을 논하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승리제단에 오게 된 것이다. 문 여사는 제단에서 새식구 21일 교육을 받던 중 하루는 예배시간에 늦어 급히 집에서 나와 면발치에 있는 택시를 발견하고 달려가게 되었다. 택시 뒷좌석에 타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멀리서 보광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잠깐 기다려!" 소리치시면서 손살같이 뛰어오시기에 택시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렸다. 그런데 택시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문 여사의 가슴 속으로 쪽 들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에 문 여사는 이전까지는 구세주께서 육신을 벗어서서 영생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처럼 본인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려 않을 수 없었다고 간증하였다.

구세주의 분신과 변신 능력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교 경전을 읽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사교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신 능력>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150만 신도를 이끌었던 영모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던 은혜자였는데, 그 분이 조희성님에게 전화를 걸어 밀실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이긴자 후보자로서 연단받게 하였다. 밀실에 입문한지 3년 만에 이긴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자, 하나님의 신을 모신 영모님이 말씀하기를 "이긴자는 자유자재로 변신을 할 수 있다. 분신으로 움직인다."라고 한 것이다.

실제로 이긴자 구세주는 분신과 변신 능력으로 한반도로 불어오는 태풍을 막는데, 그 태풍의 진로를 임의로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비껴가게 하거나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신할 때에는 태풍 자체를 죽여 남쪽 앞바다에 당도한 태풍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는 것이다.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는 데도 이긴자의 분신이 수십억 개로 쪼개져가지고 공산주의자들 속에 속 들어가서 공산주의 사상(이념)을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리니 가능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는 것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장본인에게 이긴자의 분신이 날아가서 그 마음을 바짝 조이고 전쟁을 못 일으키는 마음으로 바꿔놓는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85>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소유였던 고로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친구요, 아버지인 것이다.

약이라든지 음식물에 주님의 얼굴을 새기고 먹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게 되고 여러분의 병마를 완전히 제

거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다.

우리 제단 식구들은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고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여야 그래야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지 제대로 몰래몰래 약신 받은 사람한테 가서 치료받아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86>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여러분들 몸 자체가 하나님의 몸인 고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야, 하나님의 주장 안에서 살아야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사는

이러한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상사를 움직이는 방법

자신의 능력을 다해 성공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 그림에 불과하다. 대개 연봉 인상, 승진 등과 같은 일은 상사가 여러분을 잘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상사를 잘 움직이는 데 달려있다. 그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상사를 감동하는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일을 돕는 조력자로 생각하라. 그리고 상사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상사는 여러분이 일을 잘 해내리라 믿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일을 맡으면 열 정적으로 처리하라. 지나친 약속을 하지 말고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해내라. 자신도 없으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지 마라.

설령 좋지 못한 소식으로 상사가 화를 낼까 두렵더라도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주기적으로 보고하라. 상사는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지하게 일할 때 고마워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심각해져서는 안 된다. 일은 진지하게 하되 성격적으로는 웃음을 잃지 마라.

상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는 무 조건 순종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변화의 의지가 없거나 변화의 주변인으로 머물면서 불평만 해대는 것만큼 상사를 화나게 하는 일은 없다. 해결책이 없으면 문제를 제기하지 마라. 보고 시에는 상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소의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핵심을 꼭 짚어 말하라. 상사는 여러분이 적당히 일하고 있을 때 귀신같이 알아챈다. 상사는 여러분이 난관을 뚫고 주어진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상사는 저마다 자신만의 관리 스타일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움을 받으려면 상사의 스타일에 맞춰라. 그러려면 상호 간에 '자기 인식'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발전을 원한다면 상사와 자주 대화하라. 때때로 상사는 여러분이 하는 일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침착하게 답하라. 그래야 상사는 여러분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상사와의 만남을 위해 적어도 1시간 이상 준비하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상사가 될 필요로 하는지 미리 알아서 제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호기심을 가지고 상사의 경험과 관심 영역에 관해 탐구하라. 최 우선 과제는 상사를 성공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상사 또한 마찬가지다. 막강한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실력으로 무장된 디지털 세대 부하직원으로 인하여 설 자리가 없다.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세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으로 정보기술의 실력을 갖추어야 살아남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함은 물론,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좀 더 효율적인 경영과 성과를 위하여 능력 있는 부하직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사와 부하직원이 서로 마음을 사고, 신뢰를 얻는 것이야말로 양방향 리더십의 제1 요건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상사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부하직원이 되라는 것이다. 상사의 신뢰를 얻어 상사를 움직이는 부하직원이 결국 그 조직의 중역으로 성장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20주년

보광절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2024년 6월 19일

정도령 5대 공약 (1981년 선포)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만민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3. 아랍, 미를 붓지게 하겠다.
4. 우리 나라에 영권무공으로 통치하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